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추진 속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봉안당 건립 국도비 12억7000만원 예산 확보...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억7,000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에 사용되며, 연면적 1,000㎡ 규모에 약 6,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비 10억5,000만원과 도비 2억2,500만원이 반영되면서 군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매년 43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장률이 80%를 웃돌지만,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공설 장사시설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군민과 출향인들은 고택 용의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원거리 추모공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복지 차원에서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혀왔다.

군은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 등 행정 절차도 차근차근 밟아왔다.

현재 기반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봉안당 국도비 확보로 사업 전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순창군은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96억여원을 투입해 자연장지, 봉안당, 산분장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공설추모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절차와 환경영향을 우려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7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남원시 피오리움, 가을철 혜택 풍성

무료·할인 혜택 '어텀패스' 마련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Fiorium)이 가을철을 맞아 다양한 무료·할인 혜택을 담은 '어텀패스(Autumn Pass)'를 가을 주요 행사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피오리움은 콘도 건축이 중단되어 오랜 기간 방치됐던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미디어아트와 참

여형 콘텐츠를 통해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남원 대표 복합문화 공간이다. 개관 4개월 만에 8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향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모션은 △추석 연휴 △남원 3대 가을축제 △여행가는 가을 남원 △할로윈 등 가을여행을 주제로 운영된다.

추석 연휴에는 어린이와 경로 방문객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진행하며, 남원 3대 가을축제(△남원국제드레드제

with 로봇 △제3회 흥부제 △2025 남원국가유공자(행) 기간에 방문 인증을 하면 어린이·청소년 무료입장을 제공하며 남원 축제와 전시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10월 31일~11월 1일 할로윈 기간 코스튬을 착용한 관광객에게는 아간 무료입장과 기념품을 증정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가을 프로모션'과도 함께한다. 10월, 11월 두 달간 '여행가는 가을 남원'을 통해 남원 시민과 동행인 무료입장, 타지역(전국) 축제 방문 인증 시 50% 할인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선보인다.

남원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남원시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지



남원시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역 일자리 대표 시상식이다. 시는 2020년 우수상 수상 이후 5년 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을 생존전략으로 삼아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바이오 산업 육성 △전통문화 활성화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농촌소독 증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2024년 5대 집중 분야로 선정해 일자리 현안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고용률 43.2%로 자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 고용률은 전년 대비 4.3%포인트(p)가 증가한 74.7%를 기록했으며, 여성고용률 68.1%(+3%p), 취업자 수 44,600명(+800명) 등 모든 고용 지표가 증가했다.

남원시보건소,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

남원시보건소가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다소 높은 기온과 습도가 예상되며, 가족·친지 방문 증가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인성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감염되며 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이며,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있어, 추석 연휴 동안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거나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우유, 육류 및 가공품을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방은 관련 식재료를 냉장 보관을 해야 하며 조리 수칙 준수로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고, 특히, 닭갈비 표면에 살모넬라균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민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의존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고위험군으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 계, 새우 등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한편,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추석 연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코로나19 등 집단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감염취약시설 44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순창군 동계농협, 밤 중국 수출 선적식 가져

순창군 동계농협이 지난달 30일 동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밤 중국 수출 선적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군의회 의장, 안현우 농협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최현우(쥬트루델 이사, 밤 작목반 회장, 육광 밤 공선회 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동계 밤의 해외 수출 확대 의지를 다지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선적식을 통해 동계 밤이 해외로 뿔어나가면서 농가 소득이 크게 늘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행사가 동계농협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군, 성인 비만 예방 건강 교실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보건소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성인 비만 예방 건강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인 비만 예방 건강 교실은 건강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 또는 체지방률이 기준치(남 20%, 여 28%) 이상인 자를 선착순 20여 명 선발하여 영양과 신체활동 등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비만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비

만 예방과 만성질환 감소,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체성분 측정과 운동처방사의 1:1 맞춤 건강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트레칭 및 전신운동(타바타)과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주 2회 진행함으로써 각 개인에 맞는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지역 소식통

남원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아동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흡연·음주 폐해 교육 및 음주안경 체험, 구강·위생교육, 손 씻기 체험, 올바른 식습관 교육, 클라이밍 신체활동, 신비의 방테아성장과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 건강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풍선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놀이 요소를 결합해 흥미를 유도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험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습 효과와 참여 만족도를 한꺼번에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을 주요 참여 대상으로 전화 신청 또는 구글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예약 방식을 도입해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많은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군 성수면,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실시

성수면이 지난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주민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이루어진다.

2차 지급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 이하에 지급되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성수면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